



절에 와서 삼배는 안 해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아침저녁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족에게 삼배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예불입니다.

- 경주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당신은 무소유 하고 있습니까?

법정 스님 열반 1주기, 무소유 신드롬 속 이벤트성 변질 우려

2월 28일은 법정 스님의 열반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법정 스님의 열반 후 지난 1년간 '법정 스님' '무소유'라는 타이틀이 붙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법정 스님의 뜻과는 달리 늘 스님과 관계된 일은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2010년 교보문고 콘텐츠개발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교인들의 책 판매 현황에서 법정 스님은 인기 종교인 저자 1위로 조사됐다. 인터파크 INT 도서부문이 지난해 4-5월 홈페이지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필집 <무소유>가 458표(유효응답 9000

표)로 읽고 싶은 전자책 1위를 차지했다.

스님의 <무소유>는 종교와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스님에 대한 그리움은 곧 법정 스님의 말보따리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고, 상업화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대형서점에서는 법정 스님의 유언에 따라 2010년까지만 판매되는 법정 스님의 저서와 스님이 생전에 추천한 책, 법정 스님의 삶을 조명하는 책 등을 모아 기획된 독자 중 30명을 추천, 절판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증명한다며 판촉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법정 스님이 주석했던 불일암, 미래사, 쌍계사는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관광명소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스님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엽서까지 경매에 부쳐졌다. 한 정치인은 법정 스님의 기념관 '무소유 명상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순천시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을 되새길 수

있는 무소유의 길(가칭)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신드롬을 넘어 광기까지 비춰지는 이 같은 모습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한다. 상업화는 법정 스님이 늘 경계하던 일이었다. 스님의 뜻은 한 때의 이슈가 아닌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슈와 할 것은 법정 스님의 유품과 책이 얼마에 어떻게 팔리고, 어디에 보관될 것인가가 아니다. 스님의 무소유 사상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세상은 여전히 '1+'을 좋아한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무소유'라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우리네 삶에서 무소유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인 듯하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상술화도 문제지만, 깨달음을 원할수록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처럼 얻으려고 하는 불자들의 자세도 열반 1주기를 맞아 돌아봐야 할 때다.

2월 28일(음력 1월 26일) 법정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법정 스님이 만든 시민봉사모임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현)는 28일 11시 서울 길상사 극락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추모법회는 법정 스님의 생전 뜻에 따라 가장 간소하게 진행된다. 추모법회에 앞서 스님의 생전 영상과 합창단 음성공양 등 기재를 겸한 추모 행사도 열린다.

법정 스님은 평소 부처님의 유훈을 빌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그밖에는 모두 허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우리가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 자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상연 기자

관련기사 3, 5면

824호 CONTENTS

▶5 법정스님 열반 1주년 특집·인터뷰 덕조 스님



▶9 현장속으로 광진노인복지관 졸업식



▶11 기획 연재 윤창희의 선원총림을 가다



▶14/15 선지식을 찾아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20 연재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50년 선암사 분규 끝났다

조계종-태고종 합의 공동 조사·운영키로

한국 현대불교의 순천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50여년 분규가 사실상 종식됐다.

조계종 선암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와 태고종 선암사문제해결을위한합상위원회(위원장 화경)는 2월 9일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제1차 협상을 가진데 이어,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암사 분규종식 및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 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순천시장의 재산관리인 해임을 요청하고, 조계종·태고종 선암사 주지가 공동으로 재산관리인 인수를 진행키로 했다. 부동산과 성보문화재 등 재산현황도 공동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선암사 관리·운영을 양 종단이 협의해 시행키로 함에 따라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전통사찰 관리법에 의해 국가에서 재산관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문광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양쪽 종단이 합의하면 관리권을 이양하겠다고 말했다"며 조계종과 태고종 선암사 공동 재산관리권 인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태고종 선암사합위 위원장 경담 스님은 "순천시에는 동시에 적립된 금액을 공동으로 인수 받으면 된다. 양 종단은 관리인으로서 재산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 종단은 선암사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진력하게 됐다. 이날 합의 내용은 양 종단별 중무회의와 총무원장의 제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조동섭 · 이은정 기자

"5대 결사 불교 내부 역량 의문"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종단 내 소통 어려움 밝혀

"5대 결사는 종단과 불교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내부에만 맡겨진다고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도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의 신년 담화문에서 제시된 '5대 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사진)은 화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2월 14일 인사동 한 식당에서 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3대 사업을 확장한 화쟁위는 의제별 소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스님은 앞으로의 화쟁위 활동에 대해 설명한 뒤 "연론은 5대 결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며 5대 결사에 대해 언급했다.



5대 결사는 현재 각 교구본사와 직능단체 등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종단은 단위별 의견 수렴 뒤 구체적 실천 방안을 취합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법 스님은 "우리 불교계 실정에 그런 방식이 잘 될까? 과연 다양한 의견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잘 수렴될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사사 안에서도 5대 결사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 어려웠다"며 "다른 교구본사와 사찰들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박기범 기자

前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 스님 열반

前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 스님이 2월 17일 법랍 53세, 세수 75세로 화성 만의사에서 입적했다. 스님의 장례는 21일 용주사에서 용주사 교구장으로 봉행됐다.

정락 스님은 1939년 10월 7일 충남 천안에서 출생했다. 20세 되던 해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 후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을 1977~1981년까지 지냈다. 1983년 1월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소임을 맡았고, 1994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포교에 앞장섰다.



정락 스님은 1996년 용주사 주지 소임을 맡은 후 효행교 육원을 설립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다. 스님은 "어린이가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상연 기자

농인당
농인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단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해인선원 붓다가야 일주일 참선용맹정진 대법회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위치한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에서는 오는 3월 14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인도 붓다가야에서 해인선원 원장 금봉스님과 함께 일주일 참선용맹정진을 봉행하오니 뜻이 있는 불자들이 많은 동참바랍니다.

접수마감은 2월 28일이며 그 밖에 자세한 문의로는 053)741-87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3월 14일 (월) ■ 접수마감 : 2011년 2월 28일 (월)

■ 문의전화 : 053)741-8788 / Fax : 053)743-8835

■ 찾아오시는 길 (대구 동구 신천 4동 352-9)

